

도, 의생명산업 집적 '아시아 보스턴' 꿈꾼다

전북자치도 특례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주목 국내 의생명산업 '테스트베드' 목표 힘찬 발걸음

전북도가 미국 바이오산업의 집적지인 보스턴처럼 대한민국의 의생명산업을 키우는 텃밭으로 자리잡기 위해 나선다.

미국 보스턴은 세계 최고 명문대인 MIT와 하버드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소, 병원, 1,000개 이상 기업이 군집해 있는 세계적인 바이오 단지로 코로나 19 확산 이후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기업들의 성장으로 크게 주목받은 곳이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특례를 통해 의료·바이오 등 의생명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산업 지원을 가능케 해 국내 최대의 의생명산업 테스트베드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

을 그리고 있다. 지난 10여년 사이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질병이 전세계적으로 창궐하며 의생명산업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화이자, 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국제경쟁을 선도할 정도로 성장한 상황.

이처럼 전북도가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인 의생명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 것은 전북의 산업지도를 혁신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일환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특례를 통해 바이오융복합, 동물용의약품산업 등을 진흥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은 그동안 전북도가 역점산업으로 키워온 탄소산업과 직결돼 있어 시너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탄소소재를 활용한 의료기기는 플라스틱, 철 등 기존 소재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고 튼튼하며 신체 내에 삽입돼도 부작용이 적어 생체적합성이 높아 미래 촉망받는 기술.

전북도는 이미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를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바 있다. 센터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대병원, 관련기업 등과 함께 힘을 합치고 이번 특례를 통해 기존 인프라와 기술력을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국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25%를 넘어가고 그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산업이 고부가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 효능·안전성 시험평가 등을 지원해 동물용의

약품 산업의 거점이 되고자 한다.

도는 익산에 소재한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등 이미 구축돼 있는 기반시설과 노후화가 이번 특례 반영을 통해 연구개발, 시험평가에서 시제품 제작까지 이어져 의약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일관체계 형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북도가 동물용의약품 연구기관과 관련 기업들을 집적화해 하나의 클러스터를 구축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의 풍부한 바이오자원과 연구인프라를 활용해 국가적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바이오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북도가 추진하는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훈 기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수칙 당부

전북도, 영유아 발생환자 증가세...개인위생 철저해야

전북도가 최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0~6세)가 총 신고 환자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신생아 및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3월 사이에 유행한다.

임상증상은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 주로 상기도감염으로 나타나지만, 일부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받

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비말을 통해 전파되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 등교, 입소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

일반 도민들도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기침예절 실천, △장난감·식기·수건 등 개인물품 개별 사용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제한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네이버×전북, '로컬 브랜드 창업스쿨' 본격 시작

5주간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서 로컬브랜드의 이해 등 교육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네이버와 손을 잡고 로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네이버×전북 로컬 브랜드 스쿨'을 본격 시작한다.

네이버가 보유한 차별화된 브랜드 마케팅 교육 역량과 대형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스타트업들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며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모집한 결과 168명이 신청하며 인기로 마감됐다.

'네이버×전북 로컬 브랜드 스쿨'은 5월부터 5주간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5주간 운영되는 교육은 네이버의 전문 강사들이 투입돼 지속가능한 로컬브랜드의 이해에서부터 스마트스토어 등 디지털 플랫폼 활용 노하우, 성장마케팅 전략 전반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네



지난 5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네이버×전북 로컬 브랜드 창업스쿨'

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등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판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 이후에도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참가자 성과공유회, 브랜드 스토리텔링 컨설팅, 마켓

데이 개최, 사업자 간 네트워킹 등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북도는 '네이버×전북 로컬 브랜드 창업스쿨'을 확대해 이면에

중점 교육하는 디지털 마케팅 외에도 브랜드 스토리, 디지털 콘텐츠 제작, 투자 지원까지 연계하는 전북만의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청년농 1번지 전북서 청년농업인 신청하세요"

전북도,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통해 접수

전북도가 오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전북은 청년이 창업하고 정착·성공하기 전국에서 가장 좋은지역으로 경영안정 등 안심하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을 3단계로 수립해 진입-정착-성장단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착률을 높이고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2024년 기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에게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최대 3년간 지급한다.

추가로 후계농육성자금 지원, 농지지원, 컨설팅 지원 등 연계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착을 적극 지원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 대상

은 2024년 기준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영농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의 농업인들에게 후계농육성자금 융자금을 지원한다.

이 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자 중 5년 이상인 농업인들 중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을 선발해 추가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해 농업발전을 이끌어갈 농업인을 육성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이를 확인 후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예비) 농업인은 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청년농 1번지 전북에서 안심하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발굴에 힘쓰고 있기에, 전북도 청년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저소득 위기가구 위한 '전북 복지기동대 운영사업' 추진

전북도가 2024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활환경 불편 개선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전북 복지기동대 운영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읍·면·동별로 복지기동

대 구성 및 운영으로 복지기동대의 소규모 긴급수리 및 환경개선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실비 지원과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기동대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재능기부자 등 기존의 인적안정망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의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돕는 민관협력의 자원봉사 조직으로 구성 및 활동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기존의 복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발굴된 복지 사각지대를 해당 지역의 '복지기동대'의 손길로 직접 해소하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통해 지역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